

오리 의무자조금의 기대효과



이우진

(주)주원산오리 대표이사
(한국오리협회 감사)

최근 소비자들의 니즈는 친환경 및 무항생제의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리산업도 소비자의 니즈에 걸맞게 사업장에서 사업장으로 조성된 시장에서 이제는 사업장에서 소비자로 이어지는 사육, 생산, 가공, 소비의 구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60년대 후반에서 80년대만 하더라도 소비가 미덕인 시대에는 제조만 하여도 잘 팔리던 시대가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의 생산제품을 스스로 홍보하고 가치 있게 그 위상을 높여가며 산업의 파이를 키워가야 합니다.

오리산업은 2011년만 하더라도 농업생산의 7대

품목이었으나 2012년은 10대 품목에 겨우 턱걸이를 할 정도로 과잉과 소비 둔화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원화 상승으로 수입 농축산물들이 FTA의 협정에 따라 우리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오리도 멀지 않아 한중FTA의 파고에 민감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 95%의 자급율이 언제 하락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임의자조금으로 시장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며 현안 문제가 많은데도 선별

사용에 따른 실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자조금은 1980년부터 1990년대에 민주화, 시장화, 세계화 과정을 겪으면서 농업의 산업화, 품목화, 선진화가 불가피한 상황을 맞아 그 현장에서 협회와 산업종사자 및 연구자들이 시대적인 의식을 갖고 하의상달한 법제화의 소산입니다.

오리산업의 주체인 업계와 사육농가 스스로가 산업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축종산업발전에 원동력이 되어 정부나 소비단체, 학계와 협력조직의 지원을 요청하는 자조금의 위상이 견고하고 확대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때에 시기적절하게 의무자조금 대의원을 구성하고 의무자조금관리위원을 갖추게 됨은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는 시장확대에 대응하는 연구, 상품개발, 홍보, 교육, 약품 개발에 힘을 쏟고, 안으로는 수급조절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오리산업 전 종사자들의 이익이 되는 사

업에 정진할 때라 하겠습니다.

의무자조금은 한두명의 열의와 성의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산업의 종사자 모두가 조금씩 그 얼마를 각출하고, 각출된 재원만큼 매칭펀드로 정부가 지원하며 시기적절한 곳에 집행되리라 믿어집니다.

50여명으로 구성된 대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의무자조금 시대에 우리는 밀려오는 한중FTA에 공동대처하고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축산의 제일은 수급조절인데 영향력 있는 수급조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소비홍보와 연구개발, 교육예산을 써서 산업의 안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기대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